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지방창생

vs. 지역(地域)소멸

■ ■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1. 일본경제 회복(복구) ·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 잃어버린 일본경제 20년으로부터의 탈피 · 부흥 거버넌스의 역(逆)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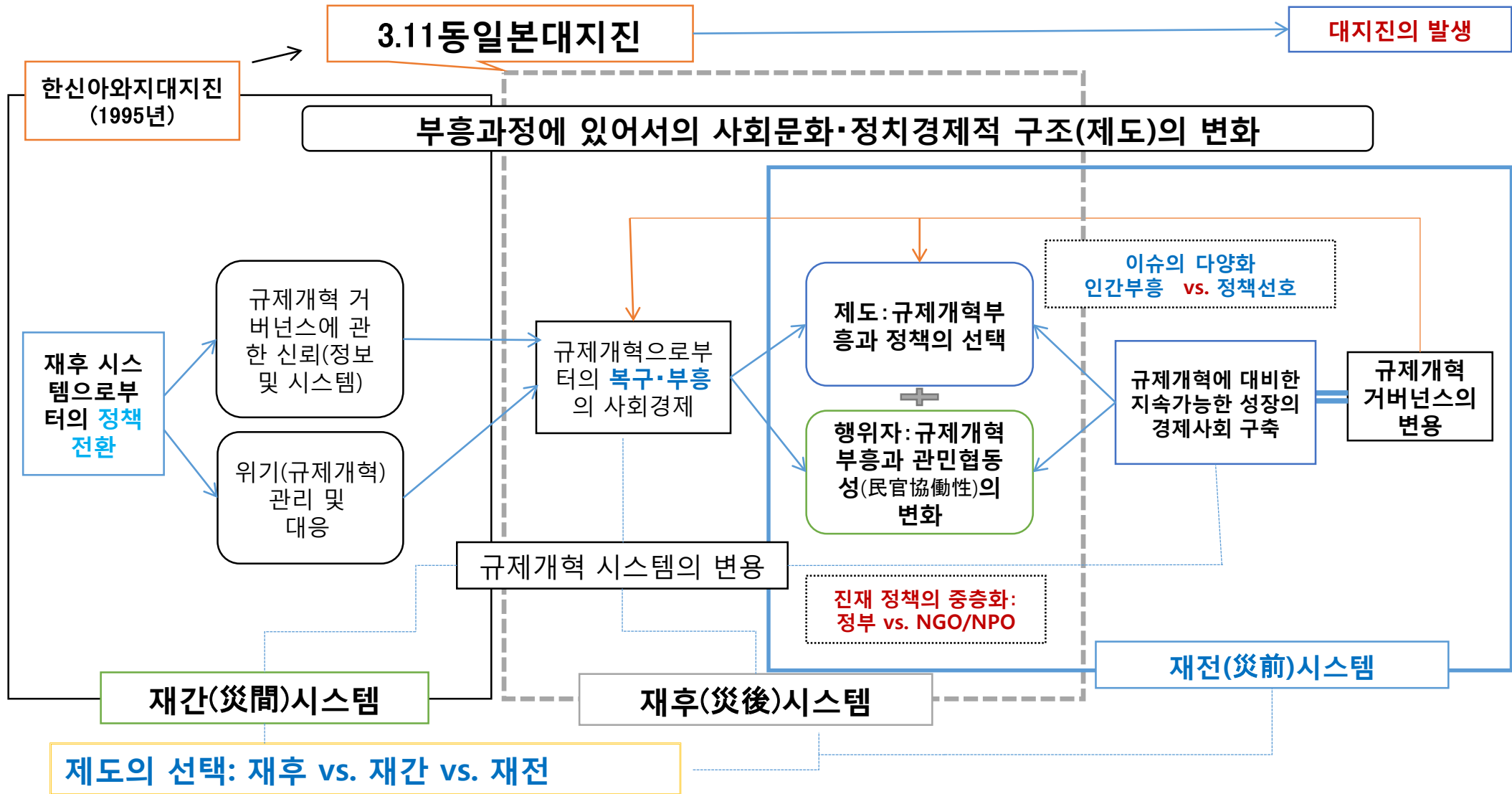
2. 4.16구마모토지진의 교훈

- 마시키쵸(益城町)의 현황
- 사전(事前)부흥의 중요성

3. 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 재해와 부흥과정을 중심으로

-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굶다
- 숲에서 자본주의를 켜안다
- 마나와(真庭)시 / 岡山県 및 지츠쵸(智頭町) / 鳥取県
- 그린투어리즘/에코투어리즘/다크투어리즘

재후(災後) 회복경제 vs. 재전(災前)/ 재간(災間)의 성장경제



부흥 제도의 선택: 재후(災後) vs. 재간(災間) vs. 재전(災前)

일본의 교훈: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지역불균형

- 경제위기 이후 지역/지방경제
 - 경제민주화 vs. 전후부흥, 지방화, 세계화

지역균형발전 불가론	- 지역균형발전이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론은 국가전체적으로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점. - 지향하는 발전이란 수도권 중심적 성장과 균형분배의 실현
지역균형발전 무용론	- 지역균형발전이 성장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 오히려 성장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훼손할 뿐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관점 - 지향하는 발전이란 지방분권을 강화해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지역대별로 각자도생에 중점

일본의 교훈: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지역불균형

- 경제위기 이후 지역/지방경제
 - 경제민주화 vs. 전후부흥, 지방화, 세계화

	정부주도	지역주도	정부주도	지역주도
지역간 발전격차에 대한 이론	① 균형성장 이론 : 로젠슈타인-로단이나 넥시	② 불균형성장 이론 : 허시먼이나 뮌르달	③ 성장거점 이론 : 페루	④ 산업클러스트 이론과 세계생산 네트워크 이론
지역발전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① 하향적 지역발전 전략: 중앙정부, 관료, 전문가 집단 주도	② 상향적 지역발전 전략: 지역이 지닌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③ 외생적 발전 전략 ≡ ① 하향적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외부의 자극과 잠재력에 의존	④ 내생적 발전 전략 ≡ ② 상향적 :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부에서 찾는 전략



일본의 지방창생법

일본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한 한국사회는 일본과 유사한 사회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앞으로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일본의 지방창생법 (1) 목적

- ① 일본사회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극복, 인구집중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법**' (약칭: 지방창생법)을 제정.
- ② 동경(東京)권역으로 **인구의 극단적인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반수가 15~24세 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경권에 대학과 대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③ **여러 사회문제의 대두**: 긴 통근시간, 높은 주택가격 (소형의 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침), 보육 문제 (보육원의 대기 아동수 증가), 고령화, 보육/의료/및 요양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젊은 연령층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경권으로 유입되고 있음. 즉, 일본인구의 감소, 동경권역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 고용형태와 지역경제의 침체 등의 사회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관련성과 연계성이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방창생법 (2) 배경 및 과정

- ① 2014년 5월 8일 일본생산성본부의 '**일본창성회의 인구감소문제 검토 분과회**'의 좌장이 기자회견을 발표한 것이 계기.
- ② 일본은 2005년 '지역재생법'을 제정·시행하여 지역재생을 추진하였다. 지역재생제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고용기회창출, 그 외에 지역의 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책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당시의 지역재생은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급부상하던 사회적 관심사항이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정책논의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흐름에서 탄생하였기에 이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약화. 결과로 보면 일시적인 사회현상(붐)에 그쳤다.
- ③ 이후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지방창생을 주창하였고 결국 2014년 11월 21일 중의원해산을 표명한 날인 11월 19일에 '지방창생법'과 '지역재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가결.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인구감소로 다가오는 일본의 붕괴, 한국의 미래는? (1)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방소멸』은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그간의 연구 자료와 논의를 집대성한 것이다. 인구 감소가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헤친 이 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망을 함께 제시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이다. 하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인구감소로 다가오는 일본의 붕괴, 한국의 미래는? (2)

도쿄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몰려드는 젊은이들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기만 할 뿐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결국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도쿄는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으로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는 등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해법들을 제시한다.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서장

일본의 인구는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한다 |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 | 인구 감소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

제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저출산을 멈출 방법은 없는가? | 출산율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
| 인구 감소 과정 3단계 | 지역 격차를 낳은 인구 이동 |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 | 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란?
| 인구 이동은 진정되지 않는다 |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 |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극점 사회 | 인구의 블랙홀 현상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제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 | 과거 균형 발전 국가 전략의 실패 | 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 | 종합 전략 본부와 지역 전략 협의회의 설치 |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추진

제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인구 이동을 막을 방어·반전선 구축 | 지방 중핵 도시가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 | 지방 중추 거점 도시 | 집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콤팩트 시티 | 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을 만들자 | 중노년의 지방 이주를 지원한다 |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 | 도쿄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도시로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제4장 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

희망 출산율은 1.8 | 출산율 향상으로 나라 전체가 젊어진다 | 청년층을 위한 결혼 육아 연수입 500만 엔 모델 | 결혼 · 임신 · 출산 지원 | 육아 지원 | 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극복 지원 | 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 | 기업의 자세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 | 일과 사생활의 균형 | 노동 인구 감소의 대안은 여성 인재 활용 | 여성 지도자 육성 | 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자 | 고령자 지원 대책 재검토 | 해외의 '고도 인재'를 받아들이자

제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 | 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 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한다 | 첫 번째 기본 목표 — '지역 인구 비전'의 책정 | 두 번째 기본 목표 — '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의 구축 | 인구 감소율이 낮은 세 지역이 보여주는 '지역의 힘' | 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제6장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 | 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 개발형

대담편 1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JR 동일본과 도요타만이 알고 있다 | 출산율이 높아져도 수십 년간 아이들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 | 고령자마저 줄어들어 버랑 끝에 몰리는 지방 | 도쿄는 인구의 블랙홀 | 죽을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 | 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

대담편 2 인구 급감 사회에 대한 처방전을 모색한다

인구 예측은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정확도가 높다 |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는 부흥 | 축소를 향한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 '현대판 참근 교대'로 국가와 지방의 벽을 허문다 | '희망 출산율'을 평가 기준으로 | 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 인구 급감을 피하기 위해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대담편 3 경쟁력이 높은 지방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 |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 | 지방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 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 | 지역 특성을 활용한 여섯 가지 모델

후기 | 일본의 선택, 우리의 선택

참고 문헌

일본 창성회의 소개

전국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 인구

부록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특별 기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

지방소멸 한국의 현황과 과제

- "강원, 18개 시·군 중 7개 군 지방소멸 위험단계 진입" 연합뉴스
2016.5.13

정재웅 강원도의회 의원(더민주·춘천)은 "20~39세 젊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50% 이하면 지역사회 기능이 마비되는 지방소멸 위험단
계" /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실천 토론회 주제발표

- 사회적 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강원도의회 사회적경제발전연구회/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방소멸 한국의 현황과 과제

• “지방소멸의 시기가 왔다” 내외일보 박창석<기자수첩>2016.5.11

우리가 지방 소멸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1) 첫째는 자기 충족 예언 [self-fulfillment prophecy] 효과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2) 둘째는 지방 소멸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는 최근에 비롯된 일이 아니다. 한 때 인구가 19만 800여 명이었던 합천군은 현재 4만 9000여 명이고, 2050년에는 1만 900여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지역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40%를 넘을 전망이다.

👉 **해결사는 누가?** : 지역주민 vs. 지방자치단체장+지방정부 vs. 중앙정부

지방소멸 한국의 현황과 과제

• “지방 소멸 현실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나와야”

영남일보 <사설> 2016.5.3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52개 기초단체의 지역 전체 인구 대비 20~39세 여성과 65세 이상 인구(2015년)를 분석한 결과

(1) 65세 이상 인구와 20~39세 여성 인구의 상대비가 0.5 미만인 지역은 총 80곳이었다. 젊은 여성과 고령 인구 비중은 1대 1로 유지하는 게 최소한의 방어선. 기초단체의 3분의 1가량이 소멸 위기.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6.2%인 데 비해 20~39세 여성 비중은 6.2%로 상대비가 0.17에 불과

(2) 전국에서 가장 젊은 곳은 수원 영통구로 65세 이상 비중이 5.4%, 20~39세 여성은 16.6%다. 상대비가 3을 넘는다. 수원 영통구에는 삼성전자와 광고 신도시가 있다. 군위군과 의성군의 20~39세 여성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45%, 43.2% 각각 감소했고 대구 서구도 42.5%나 줄어들었다. 반면 경기도 화성시는 같은 기간 20~39세 여성이 86.2%나 늘어났다.

☞ 수도권 젊은여성인구의 블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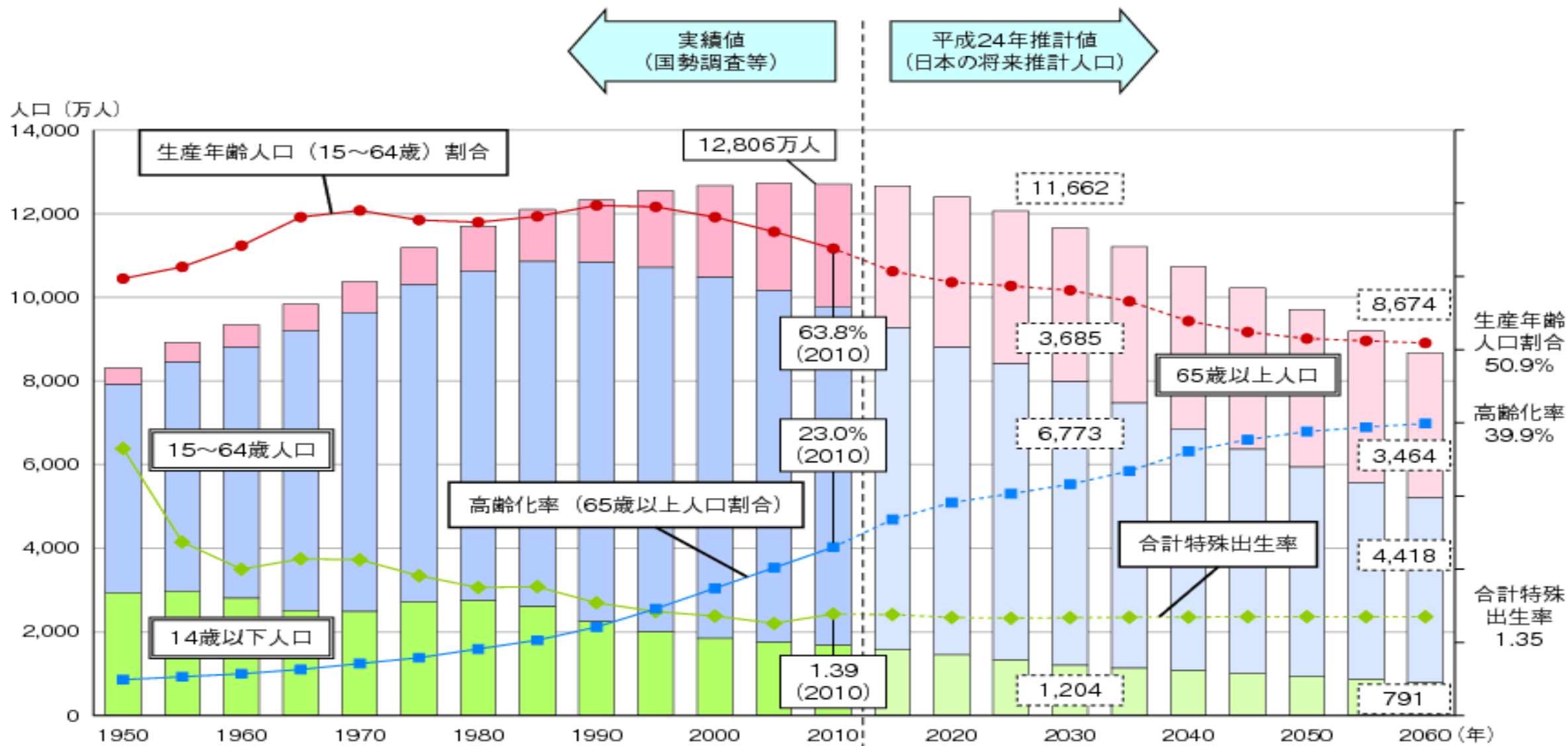
지방소멸 한국의 현황과 과제

• 과제

- (1) 지방 고령화 현상은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인구 증가에 방점을 찍은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 (2)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국가균형발전 및 대기업 투자 유인책(誘引策), 지방경제 부양 방안 등을 버무린 종합 처방이 아니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 (3)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지방소멸 시기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지 모른다. vs. **자생적 회생(부활)**

일본의 노후파산 vs. 노력(老力)

日本の人口変化



일본의 노후파산

<http://tvcast.naver.com/v/791301>

-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의 수만 600여만 명을 넘어서고 그 중 300여 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200여만 명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일본 NHK 취재팀은 숨겨져 있던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했고, 미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충격적인 노인들의 일상을 『노후파산』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 책은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 하던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들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 책은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일본의 노후파산

- 서문 _ NHK가 밝힌 충격적인 노후파산의 실상
들어가며 _ 노후파산은 현실이다

1장. 무엇이 도시 노인들을 파산으로 내모는가?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쫓기는 생활
필사적으로 일해왔어도 '보답 받지 못하는 노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다?
독거 고령자의 실태를 파악하다
병원에 갈 돈도 없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
"살아도 의미가 없다"
가난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생활보호 지원의 '벽'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집중분석: 도쿄 미나토 구의 독거 고령자 설문조사

2장. 희망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노후

돌봄 서비스에 드는 돈을 아끼고 싶다!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돌봄 서비스
홀로 짊어지기엔 너무나 거대한 외로움
"밖으로 나가고 싶다"
왜 살아 있는 것이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도시에 방치된 노년의 고독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은 게 대체 얼마만인지"
급변한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

일본의 노후파산

3장. 왜 노후파산에 처하는가?

서서히 다가오는 노후파산의 공포
최선을 다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에게 닥친
재앙
'예금 제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의료비 부담이 만드는 노후파산의 악몽
절약이 초래하는 '모순'
병은 노후파산에 불씨를 지핀다
도대체 어디에서 살라는 말인가?
연금으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부족하다
회사를 위해 온몸 바쳐 일한 결과는 파산이었다
"까마귀가 나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고 홀로 사는 고령자

들
노후파산 직전에 몰려 아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병원에서 시설로 이어지는 노인 표류

4장. 지방의 노후는 생존을 건 싸움이다

'풍요로운 농촌 생활'은 사실인가?
농촌에 노후파산이 확산되고 있다
생존을 건 노후의 자급자족 생활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걸 먹으며 절약한다오"
심장에 안고 있는 '폭탄'과 의료비 부담

일본의 노후파산

5장 당신도 노후파산의 예외가 아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고령자들
가족이 있어도 노후파산을 피할 수 없다
타인에게 신세를 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
도미노처럼 연쇄 파급되는 노후파산

“부모를 돌보았을 뿐인데 파산 신세가 되었네요”

한 끼에 1000원 이하

“병원에도 갈 수 없습니다”

나가며 _ 확대 재생산되는 노후파산

후기 _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다

역자의 말 _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가혹한 미래

『희망난민』 vs 『청년실업미래보고서』

후루이치 노리토시 지음, 이연숙 옮김(2016), 민음사

청년실업은 글로벌 이슈!!

- 한국: 가계수입의 90%이상은 근로소득에서 창출되며, 근로소득의 원천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가계의 구매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내수부진으로 인해 나라 경제도 불황으로?
- 청년실업의 문제점에 관한 『희망난민』과 청년실업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년실업미래보고서』 출간

『희망난민』 vs 『청년실업미래보고서』

후루이치 노리토시 지음, 이연숙 옮김(2016), 민음사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외딴 섬'으로 변해가는 젊은이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로 한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후루이치 노리토시의 데뷔작 『희망 난민』이 출간되었다. 일본의 '젊은이 문제'를 심도 있고, 절묘하게 규명해 낸 이 책은 졸업, 취직, 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근대적 인생 경로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통과 의례와 자아성찰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공동체의 실체를 낱알이 파헤친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투명한 미래의 기로에서 외딴섬으로 변해가는 젊은이들을 위로해 주는 돌파구로서 자주 거론되는 **새로운 공동체와 사회운동 커뮤니티**. 저자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젊은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되는 사회 분위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희망 고문을 재생산하고 꿈만 좇게 하는 공동체가 노동 시장의 변동리에 놓인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한 사회의 축소판이자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는 피스 보트 커뮤니티에서 114일 동안 집요하게 파고든 현장 조사 끝에 저자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일까.

『희망난민』

- 한국은 희망 난민 수용소가 되고 말 것인가 -한국어판 서문
당신은 희망 난민입니까 -머리말

1장 무너진 일본, 희망은 공동체?

1-1 견고한 사회에서 말랑말랑한 사회로, 1-2 희망은 공동체, 1-3 여행하는 커뮤니티로 모여드는 젊은이들

2장 여행의 종언과 새로운 단체 여행

2-1 젊은이, 여행, 현대적 불행, 2-2 여행의 끝과 신단체 여행, 2-3 피스 보트의 역사

3장 피스 보트의 비밀

3-1 역사를 다시 쓰는 피스 보트, 3-2 피스 보트를 선택한 이유, 3-3 피스 보트의 구조, 3-4 꿈을 이어 주는 피스 보트 센터

4장 자기 찾기의 유령선에 오르는 젊은이들

4-1 62회 피스 보트 크루즈의 기본 정보, 4-2 피스 보트에 승선하기 전의 젊은이들

4-3 승선 동기와 피스 보트에 거는 기대, 4-4 현대적 불행과 자기 찾기의 유령선

5장 르포, 피스 보트

5-1 세계형·문화 축제형·자기 찾기형·관광형, 5-2 배에 난 구멍, 화내는 어르신, 우는 젊은이

5-3 9조 댄스를 추는 젊은이와 내셔널리즘, 5-4 세계는 배경에 불과하다

5-5 생각으로 실현하는 세계 평화, 5-6 모형 정원에서 노니는 온화한 젊은이들, 5-7 피스 보트가 남긴 것

6장 단념의 배

6-1 끝나지 않는 피스 보트(세계형·문화 축제형), 6-2 모라토리엄의 종료(관광형), 6-3 끝없는 자기 찾기(자기 찾기형), 6-4 단념의 배, 피스 보트

7장 그러니까 당신도 단념하라

7-1 작은 공동체 안으로 모이는 젊은이들, 7-2 안식처에서 꿈을 단념하다, 7-3 사다리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

후기, 감사의 말, 주, 참고 문헌, 해설 혹은 반론 -혼다 유키, 도쿄 대학교 학생이 정리한 깔끔하지 못한 노트

지방자치론과 노력(老力) 한국의 현황과 과제

• 과제

- (1) 지방 고령화 현상은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인구 증가에 방점을 찍은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혹은 대체자원으로써의 **노력(老力)**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국가균형발전 및 대기업 투자 유인책(誘引策), 지방경제 부양 방안 등을 버무린 종합 처방이 아니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 (3)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탈(脫)인구절벽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지방소멸 시기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지 모른다. vs. **자생적 회생(부활)+인구이동과 무관?**



숲 에 서
자본주의를
꺼 안 다